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3월 8일

주지사가 관광,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뉴욕주의 역사적 과거를 조명하기 위한 "역사의 경로" 캠페인을 출범시키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를 조명하면서 관광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의 경로" (Path Through History)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의 유례 없는 박물관, 역사적 명소 및 기타 문화 기관 네트워크의 프로필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첫 단계는 뉴욕주 전역에서 뉴욕주 역사로 인한 지역 역사적 명소를 진흥하는 여러 장소에 통일된 도로 표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새 표지 시스템 이외에 이 캠페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역사의 경로" 안내 키오스크 신규 설치
- 산업과 기술, 여권과 민권, 뉴욕주와 독립, 남북전쟁 및 기이한 경치 등의 주제에 대한 맞춤식 "역사의 경로" 관광
- 방문객들이 지역의 역사 명소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역 도로 표지판 개선
- 고속도로 여행자들이 고속도로 회랑의 주요 역사적 명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역사의 경로" 루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

"이 캠페인은 뉴욕주의 풍부한 역사를 이용하여 관광, 지역 경제 발전을 진흥하고 모든 뉴요커들을 위한 교육 도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정부 청사에 설치한 전시물들은 의사당을 뉴욕주를 위한 기념물로 전환시켰으며 이제는 그것을 우리 주가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역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시기입니다."

주지사의 이 캠페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장소 및 시민들이 미국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행사한 뛰어난 역할의 주요 주제 10여 개를 취급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관들과 지역들 사이의 협조 및 조율을 조성하고 주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 사건, 역사적 건물 및 중요 운동이 뉴욕주 및 미국의 역사 전체 내에서 해석될 때 추가적 의미를 가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주에서 “문화유산관광”을 추진하고, 주 전체의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며, 역사적 명소와 문화적 전시물을 가진 주의 많은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고속도로 당국과 뉴욕주를 자문할 주요 역사가들로 구성된 역사적경로 기획팀의 창설도 발표하였습니다. 주 박물관의 이사 겸 Art Harold Holzer 박물관의 부사장이며 역사가로서 수상경력을 지닌 Mark Schaming이 이 기획팀의 공동위원장이 될 것 입니다. 이 기획팀의 추가 구성원들로는 코넬대학교의 Robert Harris 박사, 컬럼비아대학교의 역사학 및 사회학 교수 Kenneth T. Jackson, SUNY Purchase의 역사, 도시, 여성학 교수인 Lisa Keller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청장인 Howard P. Mil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역사 표지판 캠페인은 경제 발전과 고속도로, 운하 경로의 관광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고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여행자들이 뉴욕주의 많은 역사적 및 휴양 자산을 널리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정력적이 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추가로 몇 개 더 고려하도록 우리 스탭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선임부관장인 Harold Holz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예측한 바와 같이 뉴욕주가 '제국 주'가 되고 또는 아래 맨해튼의 소수 정착민들이 '제국 시' 및 세계의 수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매사추세츠도, 버지니아도, 펜실베니아도, 어떤 다른 장소도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남북전쟁시 북부 주들을 구하고 노예제도를 끝내기 위한 사람, 인력 및 자금의 선도적 기여주였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 지속적 노력, 결의 및 엄연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오늘의 미국이 어제의 뉴욕주에서 형성되었음을 우리 동포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주립박물관 관장인 Mark Schaming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역사를 생각할 때 그들은 뉴욕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뉴욕주를 생각할 때는 역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뉴욕주는 과거를 공부하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브로드웨이의 밝은 빛이든, 사라토가의 경마장이든 또는 허드슨강의 유람선이든 현재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사의 역사관광 캠페인은 주민들과 방문자들 사이에 뉴욕주에 대한 이 인식을 바꾸고 뉴욕주의 사건들이 더 큰 미국 경험을 지배하고 정의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 뉴욕 캠페인은 뉴욕주의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역사에 관련된 수 백개의 신규 설치 전시물이 포함된 뉴욕주 정부 청사의 최근 개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지사들의 홀은 이제 과거 각 최고 행정관들의 복무 일자가 포함된 자료들을 전시합니다. 뉴욕주 역사의 연대표가 주지사실이 위치한 2층의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